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조사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고 라 희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조사

김 명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고 라 희

인 준 서

고라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김 미 숙 (인)

심사위원 김 명 숙 (인)

심사위원 문 현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알아봄으로써 음악 전공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진로성숙도에 대한 문헌연구와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학년, 전공에 따라 살펴보았다.

진로성숙도란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현실적인 개인의 문제나 정서적 불안정 등을 극복하고, 직업목표를 정하되 구체화시켜 세밀한 계획을 세워 나가는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대학 기악, 성악 전공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의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일반적 특성, 진로성숙도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4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성의한 응답 6부를 제외한 134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설문지는 본 연구문제에 따라 기술통계분석(SPSS), t-검정, 일원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 전공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결정성, 참여성, 목적성, 독립성 순으로 높았다.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은 하위요인 중 참여성에서 4학년이 나머지 1,2,3학년 보다 높았고,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은 하위요인 중 결정성과 참여성에서 성악전공 학생들이 피아노와 관현악 학생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 전공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이들의 연령과 전공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

도될 수 있도록 음악교육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
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진로와 진로교육	4
2.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	6
3. 진로발달이론	10
4. 진로성숙도	24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절차	22
3. 연구도구	23
4. 자료 처리 및 분석 절차	26
IV. 설문 분석 및 결과	26
1.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학년별 진로성숙도	26

2.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전공별 진로 성숙도	31
3.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36
V. 결론	38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차례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표 III-2> 연구절차	22
<표 III-3> 설문지 구성내용	23
<표 III-4> 하위영역 신뢰도 측정결과	25
<표 IV-1>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27
<표 IV-2>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	28
<표 IV-3> 학년별 결정성의 차이	29
<표 IV-4> 학년별 참여도의 차이	30
<표 IV-5> 학년별 독립성의 차이	31
<표 IV-6> 학년별 타협성의 차이	31
<표 IV-7>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	32
<표 IV-8> 전공별 결정성의 차이	33
<표 IV-9> 전공별 참여도의 차이	34
<표 IV-10> 전공별 독립성의 차이	35
<표 IV-11> 전공별 타협성의 차이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직업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 등으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진로이론가 Donald E. Super는 개인의 진로 발달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5단계를 걸쳐 발달한다고 하였다. Super는 15~24세의 이 시기를 탐색기로 정하고 전 발달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 시기 개인은 학교생활, 여가활동,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며 역할시행 및 직업 탐색을 시도하여 직업 선택을 명료화하고, 구체화 한다.¹⁾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진로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중·고등학생들은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선택보다는 당장의 대학입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중등교육단계에서 대학입시에만 열중했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동시에 직업 준비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²⁾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선진 외국의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진로에 대한 의식 발달 수준이 낮고 직업과 진로선택의 폭이 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느끼는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진로문제를 꼽고 있다.³⁾ 결국 이는 청년 취업률과 맞물리게 되면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관심

1)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p.53.

2) 박기문,이규녀(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4(2). p.104.

3) 이기학,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한국진로교육학회, 8(1).

을 갖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진로 관련 문제는 음악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음악 전공생들이 입시로 인해 중등교육단계에서 충분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실제 진로 이행을 준비해야 할 대학시기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특히나 음악분야는 순수예술의 특성상 타 대학과 같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희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근본적인 진로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음악계는 학업을 모두 마친 음악가들이 음악적 재능이라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동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난의 현실에 처해있기도 하다.⁴⁾

따라서 음악대학 학생들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악대학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업적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와 관련된 음악대학 진로와 관련한 연구에는 5)이승민, 6)이보현의 진로개발과 진로탐색에 관한 것과 피아노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연구조사 하였다. 그 결과 진로탐색경험이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확신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진로탐색경험이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계획에 절실히 요구됨을 나타내었다. 또한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 시, 능동적인 참여와 독립적 태도를 갖출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 기악, 성악 전공 학생들의 각각의 변인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파악해봄으로써 학생들의 현재 진로 인식

p.236.

4) 홍지연(2008). 예술 고등학교 현황과 개선에 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5) 이승민(2014).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 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이보현(2014).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상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음악대학 학생들의 학년별 진로성숙도는 어떠한가?
- 2)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는 어떠한가?
- 3)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종합대학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 총 4곳의 음악대학 전공 학생을 무작위로 선정했기에 연구 결과를 다른 대학 집단에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음악대학 학생의 전공별, 학년별 진로성숙도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음악대학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진로에 관하여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악 전공자들의 진로에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진로와 진로교육, 진로발달이론,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측정도구의 개념 및 이론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진로와 진로교육

진로(career)의 어원은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to roll along on wheels).’는 뜻의 ‘carro’에서 유래되었으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 개인 생애의 전 과정’이다.⁷⁾

커리어란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축적해 놓은 직업적 경력을 의미하는 과거적인 의미가 녹아있다. 동시에 커리어는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쌓아가야 할 ‘행로’라는 말도 들어 있는 미래지향적인 용어이기도 하다.⁸⁾ 진로란 직업선택을 위한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결정들이 전 생애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⁹⁾ 또한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한다. Hoty(1974)는 진로란 인간이 일생을 통해 하는 일을 총칭하는 말로서, 그것은 삶의 중핵이며 인간이 목표를 이루는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들로는 진로를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수행하게 되

7)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경기: 정민사 p.11.

8)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9).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18.

9)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p.20.

는 연속적인 일이나 여가 모두를 포함하는 ‘생활방식’(McDaniel, 1978) ,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가족, 일, 교육과 관련되는 선택을 할 때 그 개인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개념(Hansen & Keierleber, 1978), 혹은 한 개인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계획, 과거의 성공과 실패, 현재의 적성 혹은 재능으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Raynor & Entn, 1982)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 이처럼 진로는 매우 복잡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로에 관한 다양한 의미를 아울러 보면, 진로란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일생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로와 마찬가지로 진로교육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베일리와 스타트는 진로교육을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 지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정의했으며¹¹⁾, 김충기는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며 직업적성교육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인간교육이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Hoyt은 ‘일 지향적인 사회가치에 친숙케 하여 이 가치들을 자신의 인성적인 가치체계 속으로 통합하여 일을 통해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조력하는 공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교육이란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배워서 적응과 발달을 꾀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교육임과 동시에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10) ‘상계서’. p.13.

11)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학지사 p.18.

12) 김충기,황인호,장성화,김순자,윤향숙(2011).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동문사 p.234.

2.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

가. 음악 전공 진로의 종류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2년에 출간한 한국직업사전은 우리나라 전체 9,298개의 직업(11,655개 직업명)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음악전공과 관련된 직종은 크게 국악 및 전통예능인,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음악전문가, 음악관련 아나운서 및 리포터, 악기제조 및 조율사, 학교 교사, 대학 교수, 예능강사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직업과 직무내용은 <표Ⅱ-1>과 같다.¹³⁾

나. 음악 전공 진로의 전망¹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5년 출간한 한국직업전망은 국내 주요 대표직업 약200개의 기본정보(하는 일, 근무환경, 입직경로 등)와 향후 전망 및 요인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된 내용 중 음악전공과 관련된 직종의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음악가

13)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2). 한국직업사전. Retrieved August15, 2015 from www.keis.co.kr.

14)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한국직업전망. Retrieved August15, 2015 from www.keis.or.kr.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 성악가가 포함되는 음악가의 일자리 수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면서 연주회 등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악기를 배우는 등 관련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시설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음악가의 일자리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작곡가의 경우 드라마, 영화, 연극, 무용, 뮤지컬 등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점은 향후 일자리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순수음악 공연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취향을 중시하면서 경제성이 있는 음악에 집중하다보니 고전음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전음악 관련 학과가 실용음악 관련 학과로 대체되고 있어 이는 순수음악가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전자음악의 발전과 MP3, 스마트폰 등의 발전으로 순수음악공연에 참여하는 행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순수음악가의 경우, 음악 활동만으로 얻는 수입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대학이나 학원에서 강의하는 등 다른 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지 않다. 반면 국공립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할 경우에는 보수가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편이나, 결원 시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입직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2) 교육자

가) 대학교수

음악대학 혹은 예술대학 소속의 대학교수의 일자리가 포함되는 이들의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해 시간강사의 비율을 줄이고 교수 충원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러한 점은 향후 대학교수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진행되어온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일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에서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대학교수의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입학 정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발생하면 입학정원을 감축하거나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학교간, 학과 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등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는 향후 대학교수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수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 향후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정규직 교수보다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 트랙교수나 강의전담교수 등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 신규채용 교수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수로 임용된 뒤 연구실적 등 성과물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어 교수들 간의 연구경쟁도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 중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음악교사의 일자리가 포함되는 이들의 일자리 수는 향후 10년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등학교교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생 수의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중등학교교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교사의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등학교 학생 수는 과거 200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살펴볼 때 향후 중고등학생의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 추세는 중등학교 교원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학원 강사

음악학원의 강사의 일자리가 포함되는 이들의 일자리 수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의 경우 학원 간 과다경쟁이 유발되고, 학원들의 대형화, 체인화 추세 속에서 소규모 학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는 향후 학원 강사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민들의 사교육비경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교육의 확대와 학원수업시간의 제한, 각종 경시대회의 철폐 등과 같은 교육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온라인 혹은 TV강좌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설학원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특히 영세한 규

모의 입시 및 보습을 담당하는 학원 수강생이 고가의 학원비와 부수적인 비용 등에 부담을 느끼는 예능계열의 학원에 적잖이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예상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상황에서도 사설교육기관은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학원 강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입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수강생 확보 등 학원 강사 간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획득, 교수법 학습 등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면 도태되기 쉽다. 특히 입시 학원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를 비롯한 고학력 진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3. 진로발달이론

가. 긴즈버그의 진로발달 이론

긴즈버그(Eli Ginzberg, 1911-2002)는 진로이론에 발달적 접근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는 직업선택은 1회적인 행위, 즉 단일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결정 과정이며 이 과정은 비가역적이라고 보았다.¹⁵⁾ 정리하면, 그는 직업 선택의 각 단계 과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은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내적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조건 등의 외적 요인간의 타협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¹⁶⁾

15)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11).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82.

16) 김봉환 외(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45.

타협을 선택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본 깰즈버그는 직업 선택 과정을 환상적 직업선택단계, 시험적 직업선택단계, 현실적 직업선택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각 선택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상적 직업선택단계(Fantasy Period, 6-10세)로 이 단계에서는 어린이들은 현실여건,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특정 직업을 택하며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놀이 활동을 통해서 욕구나 흥미를 표출하려고 한다. 직업선택의 문제에서 자신의 능력, 가능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욕구를 중시하는 시기이다.

둘째, 시험적 직업 선택단계(Tentative Period, 11-17세)로 청소년 초기 단계인 이 시기부터는 직업선택과정에서 흥미, 능력, 가치가 고려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현실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는다. 시험적 단계는 다음과 같이 다시 흥미단계(Interest Stage, 11-12세), 능력단계(Capacity Stage, 12-14세), 가치단계(Value Stage, 15-16세), 전환단계(Transition Stage, 17-18세)의 4단계로 나뉜다.

셋째, 현실적 직업선택단계(Realistic Period, 18-22세)로 이 시기는 청소년 중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개인은 비로소 현실적인 직업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의 요인 등과 같은 현실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타협하여 직업 선택 결정에 이르게 된다. 현실적 단계는 다시 개인이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탐색단계(Exploration Stage), 개인이 직업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관련된 내적·외적 요소를 종합할 수 있는 구체화 단계(Crystallization Stage), 자신이 한 결정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더욱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특수화 단계(Specification Stage)로 구분 된다¹⁷⁾.

17)김충기·장선철(2006).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pp37-41.

나. 수퍼의 진로발달 이론

수퍼(Donald E. Super, 1910~1994)는 깰즈버그 이론의 미흡함을 비판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이론을 정립하였다.¹⁸⁾ 수퍼는 진로발달이 아동기에서 성인 초기에 걸쳐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전 시기에 걸쳐서 발달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직업선택을 다협의 과정으로 본 깰즈버그의 이론을 보완하여 수퍼는 직업선택을 다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과정으로 보았고 발달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이라고 보았다.¹⁹⁾ 수퍼의 진로발달 단계는 5단계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며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로발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Growth Stage, 0-14세)시기에 아동은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점차 사회참여와 현실 검증력이 발달함에 따라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 단계는 다시 아동의 욕구가 지배적이며 환상적인 역할수행이 중요시되는 환상기(4-10세), 아동의 흥미와 취향이 진로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흥미기(11-12세), 아동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훈련 요구조건을 고려하게 되는 능력기로 구분된다.

둘째, 탐색기(Exploration Stage, 15-24세)로 이 시기에 개인은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탐색을 시도한다. 이 단계는 다시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등을 고려하기 시작하여 토의, 기타 경험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직업을 선택해 보는 잠정기(15-17세), 직업을 선택할 때 보다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며 자아개념을 확립하게 되는 전환기(18-21세), 자신

18)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파주: 정민사. p.59

19)김충기(2006).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p.41

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시행기(22-24세)로 구분된다.

셋째,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25-44세)시기에 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여 종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 단계는 다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한두 차례 변화를 겪게 되는 시행기(25-30세), 개인의 진로유형이 확실해짐에 따라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안정, 소속감, 만족 등을 갖게 되는 안정기(31-44세)로 구분된다.

넷째, 유지기(Maintenance, 45-65세)는 개인이 직업세계에서 확고한 위치가 확립되며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로, 개인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쇠퇴기(Decline Stage, 65세 이후)에는 개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은퇴하여 새로운 활동과 역할을 찾게 되는 시기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단계 가운데 수퍼와 그의 동료들은 탐색기와 확립기의 진로발달을 중요시했는데, 그 까닭은 개인은 이 시기에 좋아하는 직업에 대해 명료하고 구체적인 선택을 하며 그 직업에 들어가 직업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며 자아개념을 완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수퍼는 직업선택과정이 인간의 발달과정 및 발달단계에 부합되는 과정으로서, 전체 발달과정의 일부이며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간다고 했다. 그러나 진로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 노력, 환경,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자아개념은 직업발달에 본질적인 역할을 하며 유아기에서부터 형성되어 그 후로 전환, 실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을 때까지 발달된다고 보았으나 청년 후기 이후에는 대략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수퍼의 이론은 지나치게 자아개념을 지향하며 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직

업발달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²⁰⁾ 그러나 그의 이론은 개인의 직업발달 과정을 자아실현과 생애발달의 과정으로 본 점과 진로유형, 진로성숙, 진로발달 단계, 자아개념의 직업자아개념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로발달 이론 중에서 직업적 성숙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실증적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다. 긴즈버그와 수퍼의 대학생 진로발달 이론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단계상의 구체적인 특징을 발달이론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다. 긴즈버그에 의하면 대학생은 진로발달에서 현실적 직업단계(realistic perio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단계에서 직업을 탐색하고 구체화시키며, 특수화(specification)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진로발달이론가인 수퍼는 진로발달을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치는 일생 전반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 과정을 성장기(출생-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5-64세), 쇠퇴기(65세 이후)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고, 대학생은 탐색기의 시기에 해당된다고 제시하였다.²²⁾ 또한 수퍼에 의하면 개인은 대학생 시기에 직업의 선택이나 진로결정을 졸업에 임박하여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4년 동안 지속적인 자신의 적성, 흥미,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희망직업을 구상하여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진로를

20) 박선영,김지영,오효정,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파주: 정민사. p.65.

21) 김봉환 외(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87.

22) 김충기(2004).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p.56.

준비하는 단계라고 제시하였다.²³⁾

본 연구의 대상인 음악대학 전공 대학생들은 진로발달 단계상 탐색기의 시기에 해당된다. 탐색기 시기는 다시 잠정기(15-17세), 전환기(18-21세), 시행기(22-24세)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특히 대학시기는 자신의 진로자아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전환기와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해서 종사하기 시작하는 시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이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현실적인 개인의 문제나 정서적인 불안정 등을 극복하고, 또한 직업목표를 정하되 구체화시켜 세밀한 계획을 세워 나가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로성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진로성숙도

가.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의 개념은 청소년의 직업 흥미 발달을 연구했던 카터(Cater, 1940)와 직업행동은 나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제안한 스트롱(Storng, 1943)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진로성숙 용어의 필요성을 최초로 지적한 사람은 발달 심리학자인 디싱거(Dysinger, 1950)였다. 진로성숙이라는 용어는 1955년에 발표된 수퍼의 ‘직업성숙의 차원과 측정’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직업성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²⁴⁾

수퍼는 진로성숙이란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

23)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p.87.

24)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p.66~67 재인용.

에서 개인이 도달하나 위치'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진로성숙이 일어나는 다섯 가지 차원 즉, 생애발달단계와 과업에 대한 계획적 태도, 탐색에 대한 태도, 교육정보 및 직업정보, 의사 결정 원리와 실제에 대한 지식, 현실성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로 개인의 진로성숙 정도를 나타내었다.²⁵⁾

그 후 크리테스(Crites, 1961)는 수퍼의 정의를 비판하고, 진로발달을 정도와 비율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구성 개념을 사용하여 진로성숙을 재정의 하였다. 정도란 한 개인의 진로 행동과 그 개인이 속한 진로발달 단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의 진로 행동과의 유사성을 말한다. 비율로서의 진로성숙은 자신과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진로가 성숙한 정도를 말한다. 즉, 진로성숙이란 교육적 · 직업적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정도, 혹은 직업 선호도의 명료화 및 구체화라는 사회적 기대에 대한 반응으로 효과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정도를 말한다.²⁶⁾

국내에서의 진로성숙 개념은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자신의 계획 및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아와 일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라고 정의하였으며,²⁷⁾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는 진로성숙을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및 계획을 위해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²⁸⁾ 김충기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은 과정을 직업발달이라고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이라 하였다.²⁹⁾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진로성숙도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충분한 고

25) '상계서'. p.69.

26) '상계서', p.71.

27)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8)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서울.

29) 김충기(1981). 생애교육. 서울: 시공사. p.121.

찰을 통하여 직업세계 전체를 이해하고, 발달적 측면에서 자신이 속한 동일한 연령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와 계획, 결정 그리고 실천의 정도이다.

나. 진로성숙도 측정도구

1) 진로발달검사(Career Development Inventory : CDI)

수퍼의 진로발달검사도구(Career Development Inventory: CDI)는 청소년 진로성숙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5개 차원(즉, 생애발달 단계와 과업에 대한 계획적태도, 탐색에 대한 태고, 교육 정보 및 직업정보, 의사결정 원리와 실제에 대한 지식, 현실성)중 첫 4개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수퍼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검사이다. CDI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이 있었다. 1969년부터 진행된 연구는 수차례 개정을 걸쳐 1979년과 1981년 중등학생용(School Form)과 고등교육 기관에 있는 학생(College&University Form)들을 대상으로 각각 제작되었다. 이 두 가지 검사양식 사이에는 구조나 논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검사대상의 교육적 수준이나 진로발달정도가 상이하므로 문항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⁰⁾ 학생용 검사 도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가능하며, 대학생용 검사도구는 학생용 검사도구와 비슷하나, 대학상황에 맞게 조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대졸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진로발달

30) 이희영(2006).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학지사. pp90-91.

검사 도구는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5개의 하위척도는 진로발달 특수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며, 나머지 3개의 하위척도는 5개의 하위척도 가운데 같은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진로발달검사 도구는 첫째,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직업 또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고 둘째, 학생들의 교육 및 진로계획 수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셋째,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진로발달검사 도구는 건전한 교육적 직업선택을 위한 학생들의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활용에 있어서 첫째, 개인상담시 분석적인 데이터 및 예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필요로 하는 특별영역을 찾아내는데 유용하다. 둘째, 진로교육 프로그램 시행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유용하다. 셋째, 적성개발, 흥미검사 그리고 학력검사 등에서 얻은 정보와 함께 사용된다면 학생들을 위한 진로 발달 경험을 계획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³¹⁾

2) 진로성숙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 CMI)

진로성숙도 검사도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는 직업성숙개념과 진로유형 연구모형의 영향을 받은 검사도구로서 객관적으로 점수화되고 표준화된 진로발달 측정도구로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크리테스(Crites, 1965)가 수행한 12년간의 직업발달연구의 산물이다. 진로성숙도 검사 측정모델은 스탠포드 비네(Stanford-Binet)와 웨슬러(Wechsler)가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성인지는 검사척도에서 사용한 연령에 따른 점수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1) 김충기·장선철(2006).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pp.205-208.

진로성숙도 검사의 척도는 태도척도와 능력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도척도에는 선발척도와 상담척도 두 가지가 있다. 선발척도는 직업발견 및 진로설정과 관련된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 50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상담을 위하여 학생들을 분류하거나 또는 진로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적합하다. 피검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진(True) 또는 위(False)로 반응하면 된다.

태도척도는 현존하는 진로성숙검사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이다. 태도척도 가운데 상담용 척도는 7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50문항은 선발척도의 문항과 동일하다. 이들 75개의 문항들은 진로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그리고 타협성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담용 척도의 검사결과는 일에 대한 태도의 관점에서 교육 또는 상담의 효과를 자세히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능력검사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교육 및 진로 결정에 필요한 진로 정보와 계획 및 의사결정 기술을 소유한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능력검사는 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지선다형 문항으로 영역별 각20 문항씩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³²⁾ 5개의 하위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장래전망, 문제 해결로 나뉘어져 있다.

3) 진로성숙도 검사

한국 교육 개발원(1991)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는 일선학교가 중·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적 필요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검사이다. 이 검사 도구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진로성숙의 정도를 측정하며, 검사 도구의 모형은 크리

32)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학지사. pp106-107

테스의 CMI를 모델로 하되 우리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졌다. 이 검사도구 모형은 크리테스의 진로성숙 모형과 마찬가지로 진로성숙을 태도와 능력으로 구성했으나, 구체적인 하위 영역은 크리테스의 모형과는 다르게 태도영역은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으로 능력 영역은 직업세계 이해능력, 직업선택능력, 의사결정 능력으로 설정하였다. 이 검사도구 모형에 따라 각 영역의 검사 문항이 개발되었고, 검사 문항은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 명칭 조사와 진로 고민 유형에 관한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검사도구의 문항은 태도검사 36문항, 능력검사 6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³³⁾

이 검사의 특징은 첫째, 피검자 개인의 진로방향을 결정하거나 예측할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가 아니라 진로선택에 관한 태도와 능력이 동일 연령 집단에 비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가를 진단하고 기숙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피검자가 현재 어느 영역에 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진로선택에 관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모두 측정하는 종합검사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는 이기학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검사의 척도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이라는 5가지 진로태도에 대한 구인을 설정하였다.

검사지는 5개의 하위 차원을 가진 총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하도록 되어있다.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에서 성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개의 하위차원의 특징은

33) 한국교육개발원·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첫째,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가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측정한다. 둘째, 목적성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보상 등과 관련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개발,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등과 더 관련이 많은지를 측정한다. 셋째,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정도를 측정한다. 넷째, 준비성은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척도에서 사용된 하위영역을 재구성하여 결정성, 독립성, 참여성, 목적성으로 사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4년제 종합대학 음악대학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 총 4곳의 기악, 성악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40부를 회수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총 134부가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

<표Ⅲ-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측값 제외)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여자	121	90.3
	남자	13	9.7
학년	1학년	43	32.1
	2학년	38	28.4
	3학년	28	20.9
	4학년	25	18.7
전공	피아노	48	35.8
	성악	30	22.4
	관현악	56	41.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Ⅲ-1>과 같이 총 134명 중 성별은 남자 13명, 여자 121명으로 음악대학의 특성 상 여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년의 경우 1학년 43명, 2학년이 38명, 3학년이 28명, 4학년이 25명이며, 전공의 경우 관현악 56명, 피아노 48명, 성악 30명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에 걸쳐 약 8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준비, 설계, 수행, 분석, 정리의 다섯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일정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연구절차

연구절차	연구일정	연구내용
준비	2015. 6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설계	2015. 7 ~2015. 9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문제 수립 ·연구 진행 절차 및 일정 ·연구 대상 섭외
수행	2015. 9 ~2015.11	·연구도구(설문지)제작 준비 ·설문지 내용타당도 검증 및 사전조사 ·설문지 수정 및 최종 완성 ·설문지 배포 및 수집
분석	2015. 12	·통계방법에 의한 자료처리 및 분석, 결과 도출
정리	2016. 1 ~2016. 5	·연구결과 해석 및 정리 ·논문작성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Ⅲ-3>과 같으며, 최종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Ⅲ-3> 설문지 구성내용

구분	하위영역	문항수	합계
일반적 특성	성별	1	3
	학년	1	
	전공	1	
진로성숙도	결정성	8	32
	참여성	8	
	독립성	8	
	목적성	8	
	전체		35

<표Ⅲ-3>과 같이 설문지의 문항 수는 전체 35문항이며, 크게 일반적 특성, 진로성숙 총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은 배경적 변인으로서 음악대학 학생들의 설별, 전공,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한 문항이다.

나. 진로성숙도³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 척도는 이기학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논문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척도에서 사용된 하위영역 중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참여성으로 정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체 설문지의 문항 수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묶거나 삭제하여 하위영역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문항 위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진로성숙 척도는 <표Ⅲ-4>와 같이 전체 4개의 하위영역과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문항 수는 8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은 ‘매우 그렇다’를 가리키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Ⅲ-4> 하위영역 신뢰도 측정결과

구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Alpha
진로성숙	결정성	5	.670
	참여성	5	.666
	독립성	4	.639
	목적성	5	.679
	전체	19	.716

34)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4. 자료 처리 및 분석 절차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3.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빈도분석으로 통계학적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으며, 신뢰도 검증으로 신뢰도의 값을 알아보았다. 일원분산분석으로 차이검증을 알아보고, 상관분석으로 변수들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유의수준은 $p < .001$, $p < .01$,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성별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를 사용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설문 분석 및 결과

이 연구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알아보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성숙도를 전공별, 학년별 각 변인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1.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차이의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와 같이 음악대학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전체 진로성숙도 수준은 1학년(M=3.24), 2학년(M=3.24), 3학년 (M=3.24), 그리고 4학년 (M= 3.37)으로 나타났다.

<표IV-1>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t/F	p	사후검증
1학년	3.24	.368			
2학년	3.24	.375			
3학년	3.24	.437	.877	.455	n/a
4학년	3.37	.261			

*p<0.05, **p<0.01

이는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4학년의 설문결과가 수치상으로 미세하게 높다고는 하나 통계적으로 차이를 알 수 없다고 본 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교육과 더불어 개개인의 경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차이가 없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연령에 맞는 진로교육이 보다 구체적인 제도로 확립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학년별 결정성의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결정성 차이의 결과는 <표IV-2>과 같다. <표IV-2> 결정성에서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M=3.38), 2학년(M=3.31), 3학년(M=3.33), 4학년(M=3.40)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2>학년별 결정성의 차이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학년	1학년	3.38	.632	.149	.930
	2학년	3.31	.631		
	3학년	3.33	.758		
	4학년	3.40	.540		

*p<0.05, **p<0.01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실함을 나타내는 결정성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설문결과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나.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학년별 참여도의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참여도 차이의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참여도에서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M=3.42), 2학년(M=3.36), 3학년(M=3.22), 4학년(M=3.84)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IV-3> 학년별 참여성의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1학년(a)	3.42	.651			
2학년(b)	3.36	.621	5.626	.001*	d>a,b,c
3학년(c)	3.22	.566			
4학년(d)	3.84	.375			

*p<0.05, **p<0.01

사후검증을 살펴보면,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4학년의 시기가 졸업 후 실질적 직업의 현장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정도, 관심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을 이전보다 더욱 활발히 함으로 인해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4학년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다.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학년별 독립성의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독립성 차이의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

-4> 독립성에서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M=2.41), 2학년(M= 2.18), 3학년(M=2.35) 4학년(M=2.39)로 나타났다.

<표IV-4> 학년별 독립성의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1학년(a)	2.41	.691			
2학년(b)	2.18	.682	.953	.417	n/a
3학년(c)	2.35	.657			
4학년(d)	2.39	.577			

*p<0.05, **p<0.01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는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학년별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4가지의 변인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라.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학년별 목적성의 차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목적성 차이의 결과는 <표IV-5>과 같다. <표IV-5> 목적성에서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a)의 평균이 2.67이고, 2학년(b)은 2.73, 3학년(c)은 2.74, 그리고, 4학년(d)은 2.89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5>학년별 목적성의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1학년(a)	2.67	.560	.915	.435	n/a
2학년(b)	2.73	.528			
3학년(c)	2.74	.489			
4학년(d)	2.89	.503			

이는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보상 등과 관련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개발,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 등과 관련이 더 많은 지를 측정한다. 4가지 척도 중 독립성과 함께 낮은 평균을 보인 목적성은 주입식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도 선택하지 못하게 했을 뿐더러 직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마저 선택하지 못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2.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는 <표IV-6>과 같다. <표IV-6>에서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면, 피아노(a) (M=3.21)이고, 성악(b) (M=3.47), 그리고 관현악(c) (M=3.20)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후검증을 살펴보면, 성악이 다른 두 전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다.

<표IV-6>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의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t/F	p	사후검증
피아노(a)	3.21	.399			
성악(b)	3.47	.301	6.845	.001*	b>a.c
관현악(c)	3.20	.337			

*p<0.05, **p<0.01

이는 음악대학의 피아노, 관현악, 성악 전공하는 학생들 중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른 두 전공의 학생들 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직업세계 전체를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직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변인의 차이에서 살펴보면 성악 전공 학생들의 결정성과 참여도가 더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전공별 결정성의 차이

학생들의 전공별 결정성의 차이는 <표IV-7>과 같다. <표IV-7>에서 학생들의 결정성을 전공별로 살펴보면, 피아노(M=3.26, a), 성악(M=3.70, b), 관현악(M=3.25, c)로 나타났다.

<표IV-7> 전공별 결정성의 차이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전공	피아노(a)	3.26	.680	6.005	.003*	b>c
	성악(b)	3.70	.513			
	관현악(c)	3.25	.607			

*p<0.05, **p<0.01

전공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후검증을 살펴보면, 성악이 관현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실함과,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전공별 참여성의 차이

학생들의 전공별 참여성의 차이는 <표IV-8>와 같다. <표IV-8>에서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별로 살펴보면, 피아노(M=3.32), 성악(M=3.74), 관현악(M= 3.38)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IV-8> 전공별 참여성의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피아노(a)	3.32	.666	4.878	.009*	b>a,c
성악(b)	3.74	.476			
관현악(c)	3.38	.588			

*p<0.05, **p<0.01

사후검증을 살펴보면, 성악이 피아노 관현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악 전공학생들이 다른 두 전공과 비교했을 때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정도, 관심의 정도가 더 많음을 나타낸다. 이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성악전공 학생들의 참여성이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전공별 독립성의 차이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별 독립성의 차이는 <표IV-9>과 같다. <표IV-9>에서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별로 살펴보면, 피아노(M=2.33), 성악(M=2.18), 관현악(M=3.41)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9> 전공별 독립성의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피아노(a)	2.33	.669			
성악(b)	2.18	.685	1.203	.304	n/a
관현악(c)	3.41	.640			

*p<0.05, **p<0.01

이는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학년별 결과에서도 4가지의 변인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척도로 전공별 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서 전공별로도 학년별로도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라.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전공별 목적성의 차이

음악대학 학생들의 전공별 목적성의 차이는 <표IV-10>과 같다. <표IV-10>에서 목적성을 전공별로 살펴보면, 피아노(a)의 평균이 2.76이고, 성악(b)은 2.72, 그리고 관현악(c)은 2.74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10> 전공별 타협성의 차이

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피아노(a)	2.76	.567			
성악(b)	2.72	.536	.057	.945	n/a
관현악(c)	2.74	.492			

*p<0.05, **p<0.01

3.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표IV-1>과 같다.

<표IV-11>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구분	요인	N	최소값	최대값	M	SD
진로성숙	결정성	134	1	5	3.35	.638
	참여성	134	1	5	3.44	.612
	독립성	134	1	5	2.33	.661
	목적성	134	1	5	2.74	.526
전체		134	1	5	3.26	.368

<표IV-11>과 같이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전체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 학생들의 진로성숙 수준은 평균 3.26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평균값은 2.33~3.35이며, 결정성(M=3.35), 참여도(M=3.44), 목적성(M=2.74), 독립성(M=2.33)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즉,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결정성이 가장 높고, 독립성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이 가장 낮다는 결과를 통해 이들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공을 떠나 현재의 교육의 현실이 학생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음악대학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진로 및 직업을 고려할 때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교육자나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악 전공 학생들의 진로교육에서 독립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 설문결과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 전공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분석해 본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3.26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평균값은 2.33~3.35이며, 결정성(M=3.35), 참여성(M=3.44), 목적성(M=2.74), 독립성(M=2.33)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이 가장 낮다는 결과를 통해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 전공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공을 떠나 현재의 교육 현실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든 환경을 돌아보게 한다. 음악대학 학생들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진로 및 직업을 고려할 때 본인의 의지보다는 교육자나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분석해본 결과 1학년(M=3.24), 2학년(M=3.24), 3학년(M=3.24), 4학년(M=3.37)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4학년의 수치가 미세하게 높다고는 하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했듯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교육과 더불어 개개인의 경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공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분석해본 결과 성악(M=3.47), 피아노(M=3.21), 관현악(M=3.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 전공하는 학생들 중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른 두 전공의 학생들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직업세계 전체를 이해하고, 상대적으

로 직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30명의 설문 결과 음악대학 전체 성악 전공학생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알아봄으로서 음악 전공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현재 진로상황에 대해 알아보는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세우고 검증한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하여 직업세계 전체를 이해하고, 발달적 측면에서 자신이 속한 동일한 연령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와 계획, 결정 그리고 실천의 정도이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란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현실적인 개인의 문제나 정서적 불안정 등을 극복하고, 직업목표를 정하되 구체화시켜 세밀한 계획을 세워 나가는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성숙도 수준은 평균 3.26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평균값은 2.33~3.35이며, 결정성(M=3.35), 참여도(M=3.44), 타협성(M=2.74), 독립성(M=2.33)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참여도가 가장 높고, 독립성이 가장 낮다는 결과를 통해 이들이 처한 진로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 전공 학생들의 진로교육에서 독립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1학년(M=3.24), 2학년(M=3.24), 3학년 (M=3.24), 그리고 4학년(M= 3.37)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전체 값은 차이가 없었으나 4가지의 하위요소 중 전공별 참여도에서 1학년(M=3.42), 2학년(M=3.36), 3학년(M=3.22), 4학년(M=3.8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4학년의 참여도가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4학년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학년에 비해 심도 있게 고민되고 있으며 진로 문제를 좀 더 직업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전공별 진로성숙도 수준은 성악(M=3.47), 피아노(M=3.21)이고, 그리고 관현악(M=3.2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별 진로성숙도에서 성악전공학생들이 다른 두 전공학생들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네 가지 하위요소 중 결정성과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참여도는 성악(M=3.70), 피아노(M=3.26), 관현악(M=3.25)로 통계적으로 성악이 관현악보다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참여도는 성악(M=3.74), 피아노(M=3.32), 관현악(M= 3.38)로 성악이 다른 두 전공보다 높은 참여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음악대학 기악, 성악 전공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본인의 가치보다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인 영향을 더 많이 고려함을 독립성과 목적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의 전생애적 발달개념에서 성숙보다는 퇴행 혹은 정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악대학 기악, 성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될 시 개인의 가치관과 적성 및 흥미 등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올바른 진로결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학년마다 진로성숙태도에 차이를 보인 만큼 학년에 따른 맞춤형 진로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2). 한국직업사전. Retrieved August15, 2015 from www.keis.co.kr.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5). 한국직업전망. Retrieved August15, 2015 from www.keis.or.kr.
- 기영화, 서정은(2012). "음악전공자의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음악응용연구, 5, p125-147.
-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9).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양서원.
- 김충기(2004).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동문사.
- 김충기(2006).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 김충기, 김현옥(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김충기, 장선철(2006).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2011).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동문사.
- 노성환(200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영, 김지영, 오효정, 오은경(2014). 진로상담과 직업. 경기: 정민사.
- 박기문,이규녀(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연구",대 한공업교육학회지, 34(2), p.104-140.
- 송원영, 김지영(2009). 대학생의 진로설계. 서울: 학지사.
- 이기학,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한국진로교육학회, 8(1) p.230-282.
- 이보현(2014). 은악대학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

-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승민(2014).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 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 (A)Technical report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주희선(2013).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 11(3), p107-120.
- 최숙현(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지연(2008). 예술 고등학교 현황과 개선에 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ABSTRACT

Career Maturity of Music Students Majoring in Piano, Orchestral Music, and Vocal Music

Go, Rahee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areer maturity of students at the College of Music by finding out their career awareness and current situation (in music). Research on reference literature about career maturity and the categorization of career maturity of students majoring in piano, orchestral music, and vocal music at the College of Music were made according to their grade and major.

“Career maturity” refers to the process of learning and accumulating experiences in career development and overcoming personal setbacks from one’s reality or emotional insecurity. The term also includes the process of setting specific career goals and building plans accordingly. Students majoring in instrumental and vocal music at the College of Music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to determine their career maturity. The content of

the survey constitutes two areas: general feature and career maturity. 1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in total and 140 have returned. 134 of those returned were used for analysis due to the six questionnaires that were answered with insincerity.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means of SPS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erms of subject of this study.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among students majoring in piano, orchestral music, and vocal music at the College of Music is high in the order of determinacy, participation, goal orientation and independence. The senior's level of career maturity in regard to grade was higher than that of freshman, sophomore, and junior with respect to participation.

The level of determinacy and participation in career maturity, analyzed with regards to the student's grade in school, was higher among students majoring in vocal music than those majoring in piano or orchestral music.

With these results, purpose driven career education for students majoring in music will enhance their professionalism. In addition, active studies and implementations are expected so that such career education will be more enthusiastically attempted.

<부록>최종설문지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검사지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한 이 설문지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한 사람의 비밀은 절대 보장될 것이며, 본 자료가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문항을 읽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라희

raheeyo@naver.com

1.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남 여

2. 현재 몇 학년 인가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 전공이 무엇인가요? (성악 or 기악-피아노, 기악-바이올린)

□1번부터 8번 문항까지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과 선택에 대한 확고함을 나타내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음악대학에 진학한 것이 나의 진로선택에 있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3	지금이라도 음악이 적성에 맞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생각이 있다.					
4	대학 입학 후 선호하는 직업이 자주 바뀌고 있다.					
5	다시 선택한다 해도 음악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6	일단 선택한 진로는 설사 적성이나 흥미가 맞지 않더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7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8	장래 나의 직업에서 내가 생각하는 인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9번부터 16번 문항까지는 전반적인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사전이해와 준비 및 계획의 정도를 포함하여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9	음악과 관련된 진로의 종류를 조사해 보았다.					
10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저것 여러 종류의 일을 해보고 나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1	졸업하기 전까지는 직업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					
12	음악관련 취업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보았다.					
13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14	앞으로 취업할 것인가, 진학(유학/대학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부모님과 의논한 적이 있다.					
15	음악관련 직업세계를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16	내 직업계획이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잘 모르겠다.					

□17번부터 24번 문항까지는 진로선택에 있어 타인의 결정과 의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7	직업선택은 스스로 하기 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18	누군가 나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해주면 좋겠다.					
19	졸업 후 부모님이 정해주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20	나의 가까운 친구들과 선배들, 선생님이 나의 성격이나 적성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21	직업을 선택할 때 나만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22	나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23	나 아닌 누군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말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4	나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진로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25번부터 32번 문항까지는 개인이 진로 및 직업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알아보는 것으로 욕구와 현실에 어느 정도 타협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5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 그냥 즐기면서 음악만 하고 싶다.					
26	나는 월급만 많이 준다면 음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어떤 직업이든지 선택하겠다.					
27	나는 직업 선택시 경제적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28	나는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 싶지만, 안정적이지 않아서 선택이 망설여진다.					
29	나는 하고 싶은 직업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포기할 수 있다.					
30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나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					
31	나는 때때로 직업의 사회적 수준과 나의 만족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					
32	나는 앞으로 내 자신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유명해 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